

# 2018년 경찰공무원(경감) 정기 승진시험

- 2교시(경찰행정법) -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시험시간 [11:20 ~ 12:40(80분)]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 과목 : 경찰행정법(경감)

### [문제 I]

甲과 乙은 丙 소유의 집에 동거 중이다. 경찰관 A는 '남편(甲)이 칼로 자신(乙)을 위협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乙의 비명소리가 들릴 뿐,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A는 수 일 전에도 乙이 甲에게 폭행을 당해 112 신고를 하였던 점을 상기하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파손하여 해제한 후 집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甲이 A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A는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이후 검찰에서는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법원에 기소하였으며, 甲은 '경찰관 A가 집에 강제로 들어온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경찰관 A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파손하여 해제한 후 집 안으로 진입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논하시오. (20점)
2. 형사법원은 경찰관 A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파손하여 해제한 후 집 안으로 진입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직접 심리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실체판결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5점)
3. A의 현관문 잠금장치 파손에 대하여 丙이 취할 수 있는 행정법상 권익구제 수단을 검토하고, 만약 A의 현관문 잠금장치 파손이 적법하다면, 그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인용가능성을 논하시오. (15점)

※ 丙은 甲, 乙이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인 것 이외에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문제 II] 다음을 약술하시오.

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5점)
2. 사정판결 (25점)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참고조문 별첨)

# <참고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